



내달 1일 광주서 창립

미국산 원료 사용, 정직한 제품으로 승부



〈정광속 사장〉

광주에 본사를 둔 '그린알로에'가 차별화된 원료를 강점으로 건강기능 제품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다.

(주)그린알로에(대표이사 회장 박문수)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사옥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8개 월여동안 연구 개발한 건강기능 식품과 순수 자연화장품을 내보이며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이날 창립행사에는 임직원과 생활건강설계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문수 회장은 28일 "그린알로에는 '세상을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곳에 건강과 행복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승경영, 섬김경영, 정도경영을 펼쳐나가겠다"며 "광주에서 출발하지만 아낌없는 투자로 전국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알로에는 클레오 파트라가 아름다움을 가꾸고 미국 인디언들이 상처 치료에 사용하는 등 인류에 6천년간 이어져 내려온 '신비의 약초'라고 불린다. 이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라는 찬사도 얻었다.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알로에의 대표적인 효능은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다. 알로에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염증, 항종양 작용 및 일반 대사성 질환 치료 작용이 있다.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이런 점 때문에 외부장기 및 내부 장기의 궤양 등 여러 종류의 상처에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알로에는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작물이다. 보습효과와 빨라진 색소 형성 억제 효과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피부보호 및 미용용품으로 다채롭게 개발되고 있다.

그린알로에는 이같은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료를 원산지인 미국 농장에서 들여오고 있다. 미 남부지역 알로에 농장에서 재배된 순수 알로에를 200대 1의 고농축 알로에 베라겔 분말로 수입해 오는 것이다. 원료는 국제알로에기준협의회(IASC)가 품질을 보증했다. 대부분의 알로에 제품이 원료를 중국산



알로에 원료를 수입해오는 미국 남부지역 현지 농장.

신선도 유지·고객만족 서비스 최우선 판매망 직영체제... 올 매출 목표 300억

으로 사용하는 것과 대비한 차별화 전략이다.

그린알로에는 이같은 차별화된 원료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놨다. 후발주자인만큼 시장 경쟁을 위해 가격은 타 제품과 동급으로 책정했다.

그린알로에가 창립하기까지는 정광속 사장의 열정과 땀이 큰 몫을 했다.

남양알로에에서 20여년간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정 사장은 10여년간 줄곧 전국 판매 1위를 차지한 '알로에 판매 신화'를 이룬 영업맨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3월 미국 농장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한 뒤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있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 '바이오프로젠'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알로에 제품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또 충북 청원 오창과학단지에 최상급(GMP1호) 시설을 갖춘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주)네추럴에프엔피'와 기술협약 양해각서를 체결, 제품 생산체제를 갖췄다.

그린알로에는 올해 3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과 제품의 신뢰를 위해 모두 직영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건강기능제품은 고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깨끗

해야 한다"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최고의 경영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린알로에는 광주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며 "특히 3천여 직원을 대부분이 여성인만큼 행복이 넘치는 평생일터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린알로에는 제품의 신선도 유지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나주에 물류센터와 교육연수원을 갖췄다.

특히 나주 산포면에 있는 연수원은 5천평 부지에 대강당과 소강당, 숙소, 카페, 스포, 클럽 등의 시설을 갖춰 교육과 휴양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성사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클럽을 만든 것이 눈에 띈다.

그린알로에는 다음달 1일 창립행사에 이어 조만간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도 열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면역력 높여주고 상처 치유

건강 식품·화장품 등 37개 제품 시판

그린알로에가 다음달 1일 창립행사와 함께 건강기능 제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 37개 제품을 출시,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그린알로에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린건강기능성식품인 그린베라겔 등 21개 제품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아베라 시리즈 등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간판 제품인 '그린베라겔'은 알로에와 각종 다당류, 비타민, 무기질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장 점막을 부드럽게 자극,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 또 장을 튼튼하게 해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6년근 흡상을 발효시켜 알로에와 결합시킨 '그린발효효소'는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기운을 북돋아준다. 잦은 피로감을 느끼는 허약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린유어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기능을 강화해 준다. 회사는 특히 이 제품에는 소팔메토올메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이노자와 성기능 개선 등 남성 전립선에 좋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알로에베라겔 농축 분말과 헛개나무 추출물, 건조효모 등이 주성분인 '그린과워'는 스트레스, 과로, 운동 부족, 불규칙한 영양 섭취로 심신이 피로한 현대들에게 편안한 컨디션 회복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린뉴에스케어'는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한다. 관절의 연골 및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MSM(메틸설폰·식이유황)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 상어연골분말, 황금추출물분말 등이 함유돼 있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순수 자연화장품도 선보인다. 알로에와 11가지 복합추출물로 만든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인 '아벨라'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조해숙 **마크들핀오** **크루즈** **제주여행**

조해숙 마크들핀오+크루즈 패키지

크루즈 타고 제주여행

꽃바다여행+황사청정

조해숙 마크들핀오 왕복

제주여행 상품

175,000원

182일 159,000원

조해숙 대표이사

상업용 컴퓨터 전문수업장

정대영 대표이사

도도방어

HANATOUR